



호주한미술관걸린 화제의 피카소 그림 알고보니 '위작' 논란

호주의 한 미술관에서 여자 화장실에 파블로 피카소 그림(사진)들을 걸어 화제가 됐지만, 알고 보니 위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호주 태즈메이니아주 호바트 모나(MONA) 미술관의 큐레이터이자 미술관 소유주 아내인 커사 케이젤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 전용 전시관에 전시했다가 최근 화장실에 걸어 놓은 피카소 작품 3점이 사실은 자신이 직접 피카소 화풍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여성 전용 전시관을 열면서 전시관에 어울릴 녹색이 들어간 피카소 작품을 원했지만 구할 수 없었다며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그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전시된 피카소 작품들이 피카소 애호가였던 증조할머니가 선물한 것이라고 말했었다.

케이젤은 3년 전 이 작품을 공개했을 때 "누군가 '가짜 피카소 작품'이라고 폭로해 논란이 될 것을 상상했다"며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여성 전용 전시관에 전시됐던 다른 작품들도 모두 진품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이 공기를 함께 즐길 수 있게 돼 안심"이라며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덧붙였다.

케이젤은 이번 논란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며 일종의 재미라고 포장했지만, 관람객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람객에게 피카소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입장권을 팔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위작임을 고백하게 된 것도 자발적 결정이 아니라 위작을 의심한 언론과 프랑스 피카소 관리국의 계속된 문의로 인해 이뤄졌다.

케이젤은 위작임을 인정하면서 프랑스어로 피카소 관리국에 "문제를 일으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모나 미술관은 녹색 벨벳으로 장식된 화려한 여성 전용 공간에서 남성 집사가 대접하는 와인과 음식을 즐기며 피카소 그림 등 유명 작품을 즐길 수 있다는 설정으로 주목받았다. /연합뉴스



▶ 후보 교체론 논란에 휩싸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의 공식 환영 만찬 리셉션에서 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붙은 바이든 사퇴론 선거자금 모금 '반토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론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등을 돌리면서 바이든 캠프의 선거자금 모금도 타격을 입고 있다고 미 NBC 뉴스가 11일 보도했다.

바이든 캠프와 가까운 복수의 소식통들은 이번 달 바이든 캠프에 대한 거액 기부자들의 후원이 지난달에 비해 절반 또는 그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거액 기부자들뿐 아니라 소액 후원까지 전반적으로 모금액이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소식통은 현재 바이든 캠프의 모금 상황에 대해 "이미 재앙적"이며 "돈이 완전히 끊겼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달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고령에 따른 인지기능 논란이 불거지면서 후보 사퇴 압박이 커지자 지난 9일 선거자금 주요 기부자 등 300여명과 화상 통화에서 직접 완주 의지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바이든 캠프 역시 TV 토론 이후 후원금이 줄고 있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7월 첫 주 바이든 캠프의 소액 기부금은 역대 최고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본인과 캠프의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부자들의 여론은 부정적이라고 NBC는 전했다.

한 소식통은 "기부자들은 부정적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부자들이 한) 화상 통화는 억지로 짜여진 듯 보였다. 내 생각에 이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바이든 캠프의 일부 모금 담당자들은 바이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캠프 "타격 없다" 반박에도...소식통들 "돈줄 완전히 끊겨" 완주 의지가 기부자들 반발 키워...후보 사퇴 해야 근심 사라질 것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지명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주요 기부 '큰손'들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모금 담당자는 NBC에 "그 사람이 '글쎄,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은 차매에 걸렸어'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 연락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캠프의 확고한 완주 의지가 고수가 기부자들의 반발을 오히려 더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기부자는 바이든 캠프의 자신감 어린 태도에 충격을 받았으면서 긍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가 노널드트

럼프 전 대통령을 연상시켰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가 기부자들 사이에서 그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다면서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여론조사를 보고 있는 거냐'고 묻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민주당의 거액 기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 의지를 고수해 민주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민주당의 대선 자금도 고갈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수십년간 민주당에 기부해 온 후원자는 FT에 돈이 "말라가고 있다"면서 "나와 대화한 다른 기부자들도 대부분 대선에서 질 것을 우려해 기부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거액 기부자인 전직 펀드매니저 휘트니 톨슨은 FT에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면 민주당 기부자들의 근심도 사라질 것이라며 "바이든의 사퇴"가 기부자들의 관심과 에너지를 끌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日원전 30km 北해변 삼중수소 기준치 ↓"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 후 원전 인근 해변을 조사한 결과 방사성 핵종인 삼중수소 농도가 일본 자체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밝혔다.

IAEA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해변에서 채취한 해수 샘플에서 방사성 핵종인 삼중수소 농도가 일본의 운영 기준치(1천500Bq/L)를 훨씬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IAEA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미나미소마시(市) 기타이즈미 해변에서 바닷물 표본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했다. 일본의 운영 기준치는 다른 국제 안전기준보다 엄격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식수 수질 가이드 상의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는 1만Bq/L이다.

IAEA는 "일본 운영 기준치보다 크게 낮다는 것은 삼중수소 농도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해 최근까지 7차례 방류 작업을 진행했다.

오염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된 물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뒤 탱크에 저장해둔 물이다.

도쿄전력은 ALPS를 거쳐도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국제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까지 희석하는 공정을 거쳐 바닷물로 내보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중여행객, 살아있는 뱀 104마리 밀수시도

살아있는 뱀 104마리를 밀수하려던 여행객이 중국 해관에 적발됐다. 광명당 등 중국 매체들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선전 황강세관은 전남 홍콩에서 선전으로 넘어온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을 멈춰 세웠다.

이 남성이 입고 있던 바지 안에는 끈으로 묶은 캔버스 가방 6개가 달려있었고, 각각의 가방에서는 종류와 크기, 색깔이 제각각인 살아있는 뱀 총 104마리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는 밀크스네이크와 돼지코뱀, 콘스테인크 등 외래종도 있었다.

중국 해관은 생물안전법과 출입국통신품검역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동물 밀수 거점이지만, 당국은 최근 몇 년간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연합뉴스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